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영종캠페인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2007년도 기획특별전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을 12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0년 전의 한·일 양국 문물을 비교 전시하는 최초의 기획특별전으로 양국의 유물 600여점이 전시된다. (02)2077-9000

강동어린이회관에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부모 및 보육교사를 위한 강좌를 실시한다. 대상은 부모 및 보육교사며 선착순 50명이다. 일시는 11월 7일, 13일, 27일이며 아동을 위한 양성평등강의도 함께 이뤄진다. 신청은 홈페이지(www.gdtkids.or.kr)에서. (02)484-3517-8

용인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과 마당세실 공동주최로 어린이 뮤지컬 '날아라 호랑이'가 11월 11일 오후 1시와 3시에 공연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뮤지컬로 만들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관람대상은 3세 이상이다. (02)324-8994-5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활동과 유적답사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은 11월 17일, 24일 있으며 신청은 문화담당실에서 11월 9일까지 받는다. (051)510-3607

전주시 일대에서
11월 7-14일 '아시아-아프리카문화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각 국가의 한국작가들이 대거 참여, 평화를 위한 문화 연대 행사를 펼친다. 특히 초등부와 고등부 백일장대회도 함께 열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aalf.net)에서.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이말! 더 높이 뛰자!"



"천연 비누 만들기 재미있어요."

뛰는 재미, 함께하는 재미, 가을운동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경인 체육대회

다 보면 금세 친해져요. 괜찮아요." 파라미타 권민희 팀장이 청소년들을 향해 크게 웃어 보인다. 그리고는 우왕좌왕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운동장 한쪽에 설치돼 있는 천막으로 간다. 천막에서는 비누만들기, 천연염색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청소년들 여드름에 좋은 '숯'비누가 그 중 인기 '짱'이다. 비누 베이스를 녹여 숯가루를 잘 섞어 틀에 부으면 완성! 운동장에서든 목욕탕에 들어가든 시원하게 펼쳐진다. 청소년들에게 한창 인기 있는 빅뱅의 '거짓말', 원더걸스의 '텔미' 등의 가요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절로 신이 나지 지 몸을 흔든다. 본격적인 경기는 오후에 시작됐다. 게임 종류는 농구·발야구·축구 등 대부분 단체경기종목이다. 특이하게 '6인6각'이라는 게임이 있다. 구멍이 6개 뚫린 판에 6명이 각각 한쪽 발을 집어넣고 함께 달려야 한다. 서로의 발이 묶여있으니 구멍에 맞춰 발도 맞추고 마음도 맞춰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야, 구멍에 맞춰서 움직여~" 문수팀이 조금 뒤떨어져서 하자 지도교사들이 달

려온다. 아이들은 "선생님, 내 발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라며 웃는다. 웃는지 모를 표정으로 대꾸한다. 이어진 줄다리기 시합은 무조건 화합해야 하는 경기. "너네들 호우라기 소리 들리면 무조건 누워버려!" 어찌던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흥분했는지 모른다. 이번에도 지도교사들이 옆에서 코치한다. 아이들은 다소 비장한 표정으로 돌아줄 앞에 섰다. 경기는 놀라게도 관음팀이 씩씩했다. 부전승도 없이 계속 시합을 했는데도 관음팀은 놀라운 조직력과 팀워크(?)를 자랑하며 네 경기를 눈에 띄는 실력 차로 이겨버렸다. 관음팀의 민정(14)이는 자신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직접 줄을 잡는 시늉을 하며 설명까지 해 보인다. 그렇게 함께 뛰고 웃고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청소년협회 지도부(사)의 눈에도 아이들과 같은 감정이 순간순간 스쳐간다. 봉사사 정국스님은 행어 아이들이 넘어질까, 아이들 옆을 떠나지 못한다. 육천암 운산 스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연신 "야, 너무 잘한다!"고 감탄한다.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해온 스님,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아이들과



"우리는 응원이나 할까?"



"발이 연결되어서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보일 정도다. "애들 면면이 다 착해요. 오늘 벌칙 대신 즐겁게 뛰 어볼 시간이 주어져서 저희들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 다. 하지만 가끔씩은 학원도 공부도 있고, 집안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파라미 타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 아가는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하다. 고등학교 2학년 선미가 말한다. "고민 많이 했어요. 학원도 가야 하는데 말이예요. 하지만 고집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때문에 체육시간도 줄어든 요즘, 운동장을 달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좋은 법우들도 만나고 내 마음 속도 후련 해지고, 기분 정-말 좋아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보석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처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산 분, 사업을 하고 계산 분, 중대한 시련을 맞은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산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의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 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자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시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반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외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은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은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외에 걸면 차안이 품위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